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완화되나

도, 방류수 수질 기준 개선안·관리방안 마련 착수
기존 하수처리구역 외 제한→ 설치 허용 방향 가닥
지하수 오염 방지위해 전문 기술인 관리 방안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제주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개선안과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행정시 전담인력 부족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감독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관리를 선임해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제주자치도는 중산간 지역 난개발 억제와 지하수 보전을 위해 2017년 3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하수처리 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했으나 재산권 침해 및 하수도법 위반 논란 등 각종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도시계획조례 재 개정을 통해 하수처리 구역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

용해 줄 예정이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그동안 표고 300m이하 지역(제주시 동지역 제외)에서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할 수 있었지만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부실에 따른 지하수 오염이다.

2021년 기준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만550개소이다. 이 가운데 하수처리시설 용량 1일 5t 미만인 98.5%이다. 비전문가인 건물소유주가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정상적인 하수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기준치를 초과한 방

류수가 지하로 침투되고 있다.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 인력도 부족하다. 제주시는 1명이 6839개소, 서귀포시는 3명이 3219개소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은 1일 처리용량 50t 기준으로 방류수 배출 기준을 마련했으나 제주도는 5t 기준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국토환경연구원에게 '제주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및 기술관리인 선임 기준 선정 용역'을 진행해 주며, 용역 최종보고회는 12월 말 개최할 계획이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최근 중산간 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늘어나면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제주 특성에 맞는 관리 및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제주지역 특성과 현실에 맞는 수질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오영훈 지사 등이 2022 감귤데이 행사가 펼쳐진 1일 서울시 양재동 농협유통 하나로마트에서 감귤을 홍보하고 있다.

부미현기자

■ 감귤 경매·감귤데이 현장을 가다

어려운 시장 환경에도 희망은 오롯이

오영훈 지사 등 1일 가락시장·감귤데이 행사장 방문
감귤데이 행사 관심... 소비자들 "요새 감귤 맛 들어"
"어린이·여성 소비자 붙잡을 수 있는 상품 만들어야"

1일 새벽 1시 서울 가락동 시장. 경매장에는 제주산 감귤 상자들이 오전 2시에 시작되는 경매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 가락시장은 전국 9대 도매시장 중 하나로 제주감귤의 주요 유통경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경매에 앞서 시장 관계자들은 감귤 상자를 열고 귤의 맛을 살피고 있었다. 이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중도매인 A씨는 "제주 날씨가 올해 포근해서인지 그런지 상자를 열어보면 상한 감귤들이 보인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졌던 카지노업 신규 허가 권한이 제주도지사로 이양된다. 또 그동안 도지사가 지명·임명해왔던 감사위원장에 대한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장 선정·추천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오전 2시를 기해 일제히 경매가 시작됐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 감귤 주산지 농협 관계자 등과 함께 경매 현장을 찾아 농가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좋은 가

격으로 보답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체감 분위기가 사뭇 다른 듯했다.

새벽 3시를 조금 넘어 시작된 오지사와 전국과실중도매인연합회, 5대 법인관계자, 경매사, 중도매인 등이 참석한 간담회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상윤 경매사는 시장 동향 브리핑에서 "극조생 감귤의 경우 출하시기에 이태원 참사로 행사가 많이 취소되며 2021년산 대비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 또 11월 초 부패과가 집중 발생해 약 2주간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다. 조생은주의 경우 2021년산 대비 출하물량이 10% 줄고, 지금은 작년 수준 가격대를 보이고 있다"며 "쌀쌀해지는 다음 주부터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일 소비층의 연령대가 낮아진다는 점은 감귤의 생존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젊은층 소비자는 온라인 구매 비중이 크고, 당일 배송에 익숙하며, 가성비 좋은 중저가와 동시에 고가형 상품들을 동시 구매하는 성향도 있다는 게 현장의 분석이다. 특히 어린이들과 여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간담회서 제기됐다.

2022 감귤데이 행사가 펼쳐진 서울시 양재동 농협유통 하나로마트에서는 소비자들의 감귤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돼 희망을 줬다. 감귤데이는 '겨울철(12월) 1등(1일) 과일,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도 1% 미만 고품질 감귤'이라는 의미로, 매년 12월 1일 열린다.

감장 재료 구입을 위해 마트를 찾았다가 감귤 행사장에서 1박스를 구입한 60대 여성은 "요새 감귤을 먹어봤는데 맛이 들어서 한 박스를 샀다"며 "집에서 항상 과일을 먹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감귤데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소규모 행사로 진행됐지만 올해 감귤데이 7주년을 맞아 소비자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부미현기자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도의회 인사 독립성 등 7단계 제도 개선안 담겨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특별법)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에는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통합물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 36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규모가 종전 JDC의 순이익금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었

나, 소위를 통과한 제도 개선안에는 재원 범위를 '5%'로 명시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합물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 조항도 개정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다양한 물 관련 계획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졌던 카지노업 신규 허가 권한이 제주도지사로 이양된다. 또 그동안 도지사가 지명·임명해왔던 감사위원장에 대한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장 선정·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 코로나19 신규 272
잠정집계 1일 누적 34만9411
<17시 기준> **누적 34만9411**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복지혜택!
펼쳐라 노란우산
열려라 희망자산

무상 시설 지원 문화·가족사건 지원 건강 검진 혜택 경영·세무 상담

홍보대사 양지은 홍보대사 김준현

창립 60주년 중소기업중앙회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지자체 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 월 최대 100만원 납입 가능

코로나 위기 노란우산과 함께 극복하자!
집합금지, 영업시간, 시설인원 제한 업종
노란우산 신규가입시 **최대 24만원 가입 장려금 지원!**
2022년 12월 16일까지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